

# “취업 핵심역량은 절대 단기간에 갖춰지지 않는다” ‘실무형 인재’ 만들기 위한 핵심역량 강화 중심의 취업 지도에 적극 나서

아주대학교는 실사구시의 교육 이념에 따라 실용학문 중심의 교육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대학이다. 학교의 이러한 교육 방향은 법학전문 대학원의 가인가, 의학전문대학원의 인가, 전 공학분야에 대한 공학인증 획득이라는 성과들로 이어졌으며, 취업률에 있어서도 꾸준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저희 아주대학교는 취업에 성공한 인재가 취업한 다음 직장에서 더욱 인

정받을 수 있는 인재양성에 취업 지원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데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재양성의 기본 방향은 학교의 교육 역량 강화 사업에 반영되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사회진출팀의 박철균 팀장은 아주대학교 취업지원 전략의 축을 크게 두 가지로 세웠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직장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핵

심역량 중심의 취업 지도 실시이며, 두 번째는 집단 강의 방식 보다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3년 전에는 우리 대학이 전국 대학에서 정규직 부문에서 최우수 취업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년도에는 전체 취업자의 58%가 대기업과 공공기관, 행정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의 질적 수준도 우수한 것으로 조



사됐어요. 물론 이러한 취업률도 중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취업한 인재들이 직장에서 우수한 인재들로 인정받게 되길 원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한다.

핵심역량이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문제를 발견해 내어 해결 방안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와 토론 과정을 거쳐 이해 관계자를 설득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역량을 의미한다고.

최근 취업 시장에는 학점, 토익 점수만 높은 이른바 ‘서류형 인재’를 기피하고 설득력, 발표토론, 영어 말하기 능력 등의 실력을 갖춰 채용과 동시에 실무에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아주대학교는 학생들의 핵심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큰 인재양성 틀을 구축하고, 토론, 커뮤니케이션, 발표 등에 능동적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박철균 아주대학교 사회진출팀 팀장

## 자발적 참여 유도형, 취업 스터디 그룹 대폭 확대

이와 더불어 아주대학교 사회진출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취업 지원 전략이 바로 ‘자발적 참여 유도’ 전략이다.

“지금까지의 취업지원 활동은 사회진출센터에서 주로 주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학부에서 취업 지원 활동의 주관적 역할을 하고 사회진출센터는 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취업지원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별 취업 통계 실상을 정확하게 공지하고, 채용 시장의 변화 역시 전공 교수들에게 시시각각 공지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학교와 교수, 학생, 사회진출팀이 ‘취업’이란 공동의 목표 아래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갈 때 질적으로도 높은 취업률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사회진출팀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특강을 만들어 공지하고 모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면, 이제 한 학부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특강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면, 사회진출팀에서는 취업전문가로서의 자문과 이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학부가 주관이 되어 취업캠프나 특강이 진행된다면, 참여학생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이를 통해 학부 중심의 취업에 대한 관심 유도, 학생들의 참여율 확대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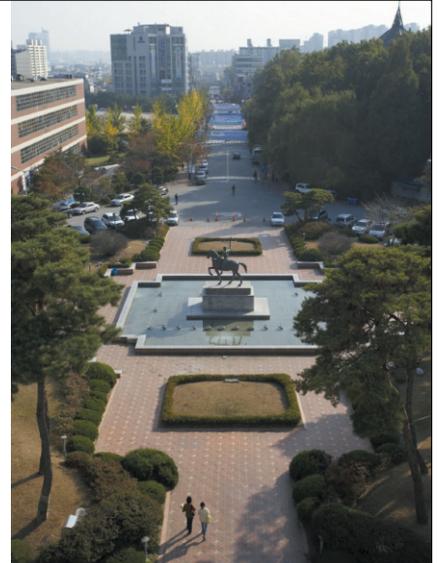
자발적 참여 유도형 취업 지원 전략의 또 하나의 예가 바로 ‘취업 스터디 그룹의 대폭 확대’다. 학생들이 스스로 그룹을 만들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스터디 그룹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상당히 원활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안, 취업 스터디 그룹을 전년도 대비 약 5배 이상 증가시키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 개인별 · 학년별 수준에 맞춘 취업지도 위한 ‘CRMS’ 개발 사업 본격 추진

“핵심역량은 단기간에 결코 갖추어질 수 없습니다. 4학년 때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1학년 때부터 취업준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학교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하나씩 달성하다 보면 4학년 졸업 시에는 필요로 하는 취업 역량을 모두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팀장은 이를 위해 학년별 성취목표와 주요 미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학년의 수준에 맞추어 취업지도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설명한다. 또한 학생 스스로의 경력관리가 체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커리어로드맵 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커리어로드맵 관리 시스템(CRMS, Career Road Map System)’은 각 개인이 설정한 자기 목표와 달성 사항을 CRMS에 입력하고, 목표와 실적의 차



이를 상시 확인하고 스스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가진 시스템이다.

학점과 장학금, 직장체험 등의 교과 과정을 비롯해 봉사 활동, 영어능력, 자격증 등 비교과활동의 경력 사항까지도 CRMS를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미달되는 학생들에게는 자동으로 경고가 공지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취업에 성공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충실하게 달성할 때,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학생들에게 발표 수업이 진행될 때,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자신이 발표자가 되고 직접 해보는 경험들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턴십, 현장 실습 등 실무를 익히는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전공 학습의 필요성과 방향성도 정립해 나가며 취업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

■ 글\_ 이은경 기자 eeklee@incruit.com  
■ 사진\_ 진영희 기자